

비정기

2020. 11.

KEEI

ISSUE BRIEF

에너지 현안 브리프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영향

- I. 개요
- II.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 III. '20년 상반기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
- IV. 에너지 산업 영향
- V. 종합 및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I 개요



◎ 코로나19는 수요측면의 충격으로 에너지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와 에너지원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필요

- 일반적인 공급측면의 충격과 달리 수요측면의 충격은 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가격의 하락을 동반하여 에너지산업의 어려움을 배가함.
 -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가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OPEC+의 감산 등 전략적 대응이 진행 중
- 코로나19가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원별 및 부문별로 상이하고, 에너지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인 경제·사회활동이 감소되는 가운데, 재택시간과 언택트(untact) 서비스 및 상품 등과 같은 일부의 수요는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에너지의 원별 및 부문별 수요의 비중은 변화가 예상됨.
 - 에너지원별 수요 및 각 시장구조의 차이로 인해 가격의 등락 폭 또한 각각 다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본 브리프에서는 코로나19가 에너지원별 및 부문별 수요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에너지산업별 경영 지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후, 단기적인 에너지산업을 전망함.
 - '20년 상반기의 에너지수급 자료를 기반으로 에너지원 전체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에너지원별 가격의 변화도 분석
 - 에너지원별 산업의 '20년 상반기 경영 실적을 에너지 수요 및 가격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단기적인 경영환경의 변화를 전망



II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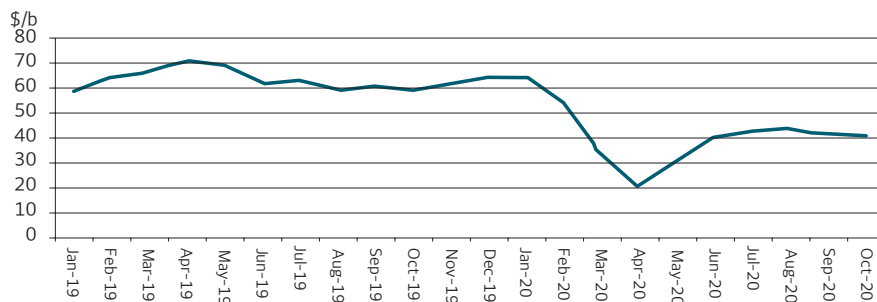
◎ 2020년 1~10월 국제 유가 동향

■ 2020년 1~10월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19년 연평균 가격(\$63.53/b) 대비 35% 하락한 \$41.38/b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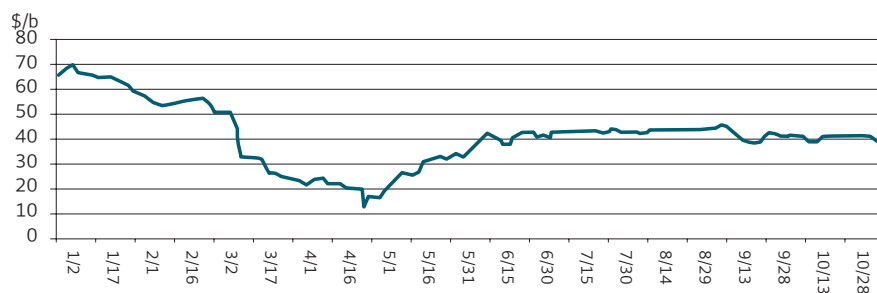
- 두바이유 가격은 1분기 \$50.42/b에서 2분기 \$30.73/b로 급락하였다가 3분기 \$42.90/b와 10월 \$40.67/b로 반등

* 2020년 일일 최고가격은 \$69.65/b(1월 6일)이고 최저가격은 \$13.22/b(4월 22일)

| 그림 1 | 월별 유가 추이('19.1~'20.10)



| 그림 2 | 일별 유가 추이('20.1.2~'20.10.30)



- 2020년 국제 유가 하락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19에 의한 세계 석유수요 감소,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감산 참여국들(OPEC+)의 감산 공조 체제의 일시적 와해 등
 - OPEC+ 공조 복원과 높은 감산준수율, 리비아 원유생산 차질,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석유수요 감소세 둔화는 3분기 이후 유가 반등의 요인
- 세계 석유수요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세계 경기 위축과 이동제한에 따라 휘발유 · 경유 · 항공유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
 - 2020년 석유수요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은 1분기 5.1%, 2분기 16.5%, 3분기 7.1%를 기록하였고, 수요 감소폭이 3분기부터 축소되는 모습
- OPEC+의 감산 공조 체제가 3~4월에 일시적으로 와해됨에 따라 석유시장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켰으나, 다시 대규모 감산에 합의하여 5월 이후에는 100%에 이르는 감산 준수율을 유지
 - 사우디가 3월 6일 회의에서 150만b/d 규모의 추가 감산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OPEC+의 감산이 중단
 - OPEC+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4월 9일에 감산 공조 체제를 복원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감산안에 합의
 - * 2020년 5~7월 960만b/d, 8~12월 770만b/d, 2021년 1월~2022년 4월 580만b/d
- OPEC+ 감산에서 제외된 리비아의 원유생산은 동부 군벌인 LNA가 2020년 1월 주요 수출항과 송유관을 봉쇄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
 - 리비아 원유생산은 2019년 12월 114만b/d에서 2020년 9월 14만b/d로 감소

◎ 국제 유가 전망

- 2020년 4분기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석유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3분기와 비슷한 \$40~42/b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표1> 참조)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석유수요 감소율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의 감소 예상
 - OPEC+가 감산 합의(770만b/d)에 대한 높은 준수율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수요 회복 지연의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

- 리비아 정세 호전으로 10월 하순부터 리비아 내 모든 석유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원유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OPEC+ 감산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

* 리비아 국영석유회사(NOC)는 10월 26일 기준 원유생산이 50만b/d로 확대되었다고 발표

- 2021년 상반기 두바이유 가격은 석유수요 회복과 OPEC+ 감산 공조에 따라 상승이 예상되나 OPEC+의 감산 규모 축소와 누적된 재고 부담으로 평균 \$45/b 내외에서 형성될 전망(기준유가 시나리오)

- 2021년 상반기 세계 석유수요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감소하면서 2020년 상반기보다 약 7~8백만b/d 증가할 전망이지만, 2019년 상반기 수요에 비해서는 3~4백만b/d 적은 규모

- OPEC+는 기존 합의에 의거하여 2021년에 감산 규모를 190만b/d 축소한 580만b/d의 감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OPEC+는 석유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합의한 감산량에 대한 조정도 가능

- 석유수요가 OPEC과 비OPEC의 총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되지만 2020년 상반기에 누적된 세계 석유재고는 해소되지 못하고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억제할 전망

* 2020년 상반기 수요 급감과 OPEC+ 감산 중단으로 누적된 재고는 약 14억 배럴

-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석유수요 회복 속도, OPEC+의 감산 전략,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 등은 2021년 상반기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 또는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고유가, 저유가 시나리오)

| 표 1 | 시나리오별 원유가격 전망(두바이유 기준)

(단위: \$/배럴)

시나리오	2020년			2021년(전망)		
	3/4(실적)	4/4(추정)	연간(추정)	1/4	2/4	상반기
기준유가				43.27	45.06	44.17
고유가	42.90	41.27	41.33	50.27	55.10	52.68
저유가				33.05	33.30	33.17

주: 에너지경제연구원 단기유가예측모형에 의한 전망치

Ⅲ '20년 상반기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



◎ '20년 상반기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 '20년 상반기 총에너지와 최종에너지 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외부활동이 위축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 3.6% 감소
 - 총에너지 기준 에너지원별 소비는 원자력이 2.8% 증가한 반면, 석탄, 석유, 가스가 각각 11.3%, 2.5%, 2.6% 감소
 - 최종소비 부문별로는 가정 부문 소비가 0.3% 증가한 반면, 산업, 수송, 상업·공공 부문의 소비는 각각 2.3%, 10.6%, 3.2% 감소

◎ '20년 상반기 최종소비 부문별 에너지 소비 동향

| 표 2 | 2020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 동향

	2019p			2020p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최종에너지										
석탄 (백만 톤)	24.1 (-0.8)	24.1 (-3.4)	48.2 (-2.1)	4.0 (1.8)	3.5 (-13.3)	3.9 (-6.5)	3.6 (-9.2)	3.4 (-16.1)	3.6 (-10.3)	22.0 (-9.0)
석유 (백만 bbl)	450.0 (-2.1)	470.3 (2.1)	920.3 (0.0)	80.0 (-4.6)	71.5 (-1.5)	72.2 (-4.0)	68.3 (-8.9)	77.9 (8.0)	70.8 (-0.7)	440.6 (-2.1)
도시가스 (백만 m ³)	13.6 (-2.7)	9.6 (-6.1)	23.3 (-4.1)	3.1 (-8.9)	2.8 (-2.5)	2.4 (-3.0)	1.9 (-8.6)	1.4 (-10.5)	1.1 (-11.1)	12.7 (-6.8)
전력 (TWh)	259.9 (-0.7)	260.6 (-1.5)	520.5 (-1.1)	46.3 (-4.8)	44.5 (0.3)	42.9 (-0.5)	40.5 (-4.6)	38.3 (-5.8)	39.8 (-2.1)	252.3 (-2.9)

	2019p			2020p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열에너지 (백만 toe)	1.5 (-4.8)	1.0 (-5.0)	2.6 (-4.9)	0.4 (-8.5)	0.4 (-0.7)	0.3 (2.6)	0.2 (5.8)	0.1 (5.7)	0.1 (4.4)	1.5 (-1.1)
신재생·기타 (백만 toe)	4.8 (5.5)	4.6 (-0.3)	9.3 (2.6)	0.8 (-3.7)	0.8 (2.9)	0.8 (-3.3)	0.8 (-3.8)	0.7 (-4.7)	0.8 (6.9)	4.7 (-1.1)
합계 (백만 toe)	116.7 (-1.0)	114.5 (-0.3)	231.2 (-0.6)	21.3 (-5.1)	19.4 (-2.4)	19.2 (-2.9)	17.6 (-7.8)	17.9 (0.0)	17.0 (-2.9)	112.6 (-3.6)
산업	70.4 (-0.9)	72.4 (0.7)	142.7 (-0.1)	12.5 (-0.2)	11.2 (-1.5)	11.9 (0.8)	11.0 (-5.4)	11.2 (-4.9)	11.0 (-2.5)	68.8 (-2.3)
수송	21.3 (1.0)	21.2 (-2.9)	42.6 (-0.9)	3.2 (-15.6)	3.1 (-4.8)	2.9 (-20.0)	2.9 (-21.7)	3.6 (10.2)	3.3 (-8.5)	19.1 (-10.6)
건물*	25.1 (-2.6)	20.9 (-1.3)	46.0 (-2.0)	5.6 (-8.5)	5.2 (-2.8)	4.4 (1.2)	3.7 (-1.7)	3.1 (8.6)	2.7 (3.5)	24.7 (-1.4)
배출량 (백만톤CO ₂ eq.)										
총계	295.8									275.9 (-6.7)

*건물 부문은 가정, 상업, 공공 부문의 합
() 안의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산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둔화로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 활동이 부진하여 에너지 소비가 2.3% 감소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본격화된 4~6월에는 수출이 각각 25.6%, 23.8%, 10.8% 감소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광공업생산지수는 각각 5.0%, 9.8%, 0.5% 하락함.
-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ICT 생산지수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생산지수는 하락세가 대폭 확대됨.
- 철강업의 에너지 소비는 1~3월 -1.1%~-3.7% 정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4월부터는 감소세가 -10.2%~-13.3%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상반기 -7.2%).
- 석유화학업의 소비는 1~3월 3.0~6.0%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4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상반기 1.4%).
- 조립금속업의 에너지 소비는 반도체를 비롯한 ICT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조 등의 생산활동 저조로 상반기 2.6% 감소함.

■ **(수송)** 수송 부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해외 여행 급감 등으로 도로와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가 10.6% 감소

- 도로 부문에서는 유가 급락에 따른 가격 효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며 에너지 소비가 7.1% 감소함.
- 항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과 이로 인한 해외여행 급감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44.9% 급감함.

-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해운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의 급감(-13.2%)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7.1% 증가함.
- 유종별로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가 각각 4.5%, 6.9%, 10.9% 감소하였고, 항공유는 44.9% 급감한 반면, 해운 부문에서 주로 쓰이는 B-C유는 5.2% 증가함.

■ **(건물)** 건물 부문에서는 연초 난방도일 급감과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1.4% 감소

- 상반기 난방도일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으며,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가장 높은 1월과 2월은 각각 14.1%, 4.8% 감소함.
- 상업 부문에서는 도·소매, 음식·숙박, 공연·예술·스포츠 등에서 전반적인 생산 활동이 감소하여 에너지 소비가 4.1% 감소함.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연해지면서 서비스업 중 에너지 소비 집약도가 가장 높은 음식숙박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음식숙박업의 생산지수는 국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 1~6월 서비스업 생산지수 변화율은 0.9%, 1.2%, -5.0%, -6.1%, -4.0%, -0.1%, 음식숙박업의 생산지수 변화율은 -2.2%, -14.9%, -32.5%, -24.6%, -13.9%, -12.2%임.
- 반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는 난방도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0.3% 증가함.

◎ '20년 상반기 총에너지 기준 에너지원별 소비 동향

| 표 3 | 2020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 동향

	2019p			2020p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일차)에너지										
석탄 (백만 톤)	63.0 (-8.5)	70.0 (-2.9)	133.0 (-5.7)	10.7 (-13.6)	9.3 (-16.0)	8.9 (-14.4)	8.9 (-4.1)	8.6 (-9.3)	9.6 (-8.8)	55.9 (-11.3)
석유 (백만 bbl)	454.8 (-2.5)	474.2 (1.9)	929.0 (-0.3)	80.7 (-4.8)	71.9 (-1.7)	72.6 (-5.1)	68.6 (-9.3)	78.2 (7.6)	71.1 (-0.9)	443.2 (-2.5)
가스 (백만 톤)	21.4 (-5.2)	19.5 (-0.8)	40.9 (-3.2)	4.9 (-2.4)	4.4 (7.4)	4.0 (3.6)	3.0 (-10.5)	2.3 (-16.1)	2.4 (-3.1)	20.9 (-2.6)
수력 (TWh)	3.0 (-11.5)	3.2 (-16.3)	6.2 (-14.1)	0.5 (-1.1)	0.5 (12.1)	0.5 (18.4)	0.5 (-3.5)	0.6 (4.2)	0.5 (6.7)	3.2 (5.7)
원자력 (TWh)	79.8 (33.1)	66.1 (-10.2)	145.9 (9.3)	11.9 (-2.9)	12.7 (15.0)	14.5 (3.1)	13.7 (-3.3)	15.3 (3.3)	14.1 (3.6)	82.1 (2.8)

	2019p			2020p						
	상반기	하반기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신재생·기타 (백만 toe)	9.2	9.0	18.3	1.5	1.5	1.7	1.7	1.6	1.6	9.6
	(10.0)	(3.5)	(6.7)	(-7.4)	(7.2)	(4.0)	(11.0)	(-1.6)	(8.7)	(3.5)
합계 (백만 toe)	151.5	152.3	303.8	27.3	24.9	24.8	22.8	23.2	22.7	145.7
	(-1.0)	(-1.4)	(-1.2)	(-6.9)	(-1.4)	(-4.0)	(-6.5)	(-1.3)	(-2.2)	(-3.8)

■ **(석탄)** 석탄 소비는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

- 발전 부문은 전기 소비 감소와 더불어 상반기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른 석탄발전 상한제약이 전체 석탄 발전기로 확대되면서 가동률이 대폭 하락하여 상반기 석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2.8% 감소함.
- 산업 부문에서 건설 경기 하락으로 시멘트 제조용 유연탄 소비가 13.8% 감소하였고, 조선 및 자동차 등 수요 산업의 침체로 철강(조강) 생산이 9.8% 감소하면서 산업용 무연탄과 유연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함.
- 건물 부문은 난방용 석탄 소비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탄 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상반기에도 21.0% 감소함.

■ **(석유)** 석유 수요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

- 수송 부문에서는 여객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도로와 항공 부문 소비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1%와 44.9% 감소하였고, 전체 소비는 10.8% 감소함.
-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석유화학 설비 증설 등으로 원료용 LPG 소비가 증가하여 전체 소비는 2.5% 증가함.
- 건물 부문에서는 재택시간 증가에도 난방도일이 전년 대비 4.8% 감소하는 등 온난한 날씨로 난방 소비가 감소하며 전체 소비는 0.2% 감소함.
- 주로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 6.8%, 40.5% 감소하고, 원료용 납사는 2.2% 감소하였으나 산업 부문의 원료용 소비를 포함하는 전체 LPG 소비는 9.9% 증가함.
- * 휘발유, 경유, 항공유의 증가율 수치는 위 수송 부문 각 유종별 증가율 수치(각각 4.5%, 6.9%, 44.9%)와 상이함. 이는 휘발유와 경유는 수송 부문 외에 산업 및 건물 부문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고, 항공유는 공공 부문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임. 2020년 상반기 공공 부문 항공유 소비는 28.8% 증가하였음. 참고로 2019년 기준 전체 항공유 중 공공부문의 소비 비중은 8.2% 임.

■ **(가스)** 천연가스 소비는 도시가스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소비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에 그침.

- 발전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기 소비가 감소하였지만 유가하락에 따른 LNG 도입 가격의 하락과 보철 석탄발전 상한 제약의 확대에 의한 기저 발전량 감소로 발전용 가스 소비는 1.9% 증가함.

* 가스 발전량이 중유 발전량을 일부 대체(2020년 1월부터 평택기력(중유발전기) 1~4호기가 LNG로 전환)

- 최종 소비 부문의 도시가스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저유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로 전 부문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함.
- 산업 부문의 도시가스 소비는 산업활동 위축과 타연료 대비 상대가격 악화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한 가운데, 석유화학에서 직도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소비가 18.5% 증가하면서 산업 부문 도시가스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 상반기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반면, 중유와 LPG 가격은 각각 18.7%, 7.6% 감소

- 건물 부문은 상반기 온화한 겨울 기온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부문 생산 활동 감소로 도시가스 소비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함.

■ (전력) 전력 소비는 초반의 기온효과와 3월 이후 코로나19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 1월과 2월에는 난방도일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4.1%, 4.8% 감소하여 전력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
- 산업 부문 전력 소비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산업 생산 활동이 대폭 둔화되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함.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4~6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6%, 23.8%, 10.8% 감소하고 광공업생산지수는 각각 5.0%, 9.8%, 0.5% 하락하여 산업 부문 전력 소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건물 부문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상업 부문과 가정 부문에서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상업 부문 전력 소비는 2.0% 감소한 반면 가정 부문 소비는 5.3% 증가함.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는 상업 부문에서는 전력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가정 부문에서는 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재생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분류 제외로 5.5% 감소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발전량은 설비 용량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6%, 14.5%, 38.1% 증가함.
- * 2020년 6월 기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설비 용량은 전년 동월 대비 44.3%, 7.0%, 42.4% 증가함.
- IGCC 발전량은 작년 상반기 안전사고로 인한 가동중지(2018.12~2019.5)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780.6% 증가함.
- 반면, 폐기물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법령 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2019.10)되면서 설비용량이 급감(-81.8%)하여 발전량도 전년 동기 대비 86.9% 감소함.
- 신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발전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하여 비재생 폐기물에너지의 분류 제외 효과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인 것으로 분석됨.

■ (열에너지 소비) 열에너지 소비는 겨울철 온화한 날씨로 인한 난방도일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 부문을 중심으로 열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였지만, 겨울철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열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1월에만 8.5% 감소하면서 열에너지 소비 감소를 견인함.
- * 3월 이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업 공공부문에서의 소비는 감소하거나 정체된 반면, 가정용에서 증가하여 증가세를 이어감.
- * 6월에는 평균기온 상승으로 난방/온수용으로 쓰이는 가정용에서는 감소한 반면, 냉방용으로도 쓰이는 상업용에서 대폭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함.

◎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동향

- **(국내 석유제품 가격)**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과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주요 석유제품 가격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

- 휘발유, 수송경유, 수송부탄 가격은 올해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에도 전년 동기의 유류세 인하 효과로 하락 요인이 일부 상쇄되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5%, 6.0%, 0.7% 하락함.
- * 1~6월 중 하락폭이 가장 컸던 5월에는 각각 17.3%, 23.1%, 14.5% 하락함.
- 중유(B-C유) 가격은 선박연료의 황 함량 기준을 대폭 강화(3.5% → 0.5%)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하락함.

- **(국내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7월 요금 인상 후 2020년 6월까지 동결되었다가 1년 만인 2020년 7월에 인하

- 도시가스 요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 요인에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하여 1년 만에 인하를 결정함.
- 용도별로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이 각각 10.7%, 11.4%, 15.5% 인하됨.
- *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해 주택용과 일반용을 제외한 산업용 등 나머지 용도의 원료비를 현행 홀수월마다 조정에서 매월 조정으로 개편할 예정임.

- **(전력도매가격)** '20년 상반기 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은 78.2원/kWh로, 전년 동기의 98.6원/kWh 대비 약 20.7% 하락

- SMP 하락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19에 의한 전력수요 감소, 유가 하락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열량 단가 하락 등에 기인

- **(국내 열에너지 요금)** 열에너지 요금은 2019년 8월 요금 인상 후 2020년 6월까지 동결되었다가 11개월 만인 2020년 7월에 2.8% 인하

- 열에너지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하락과 연료비 정산으로 인한 할인요금 감소, 고정비 상승 등이 반영되어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보다는 적게 인하

Ⅳ 에너지 산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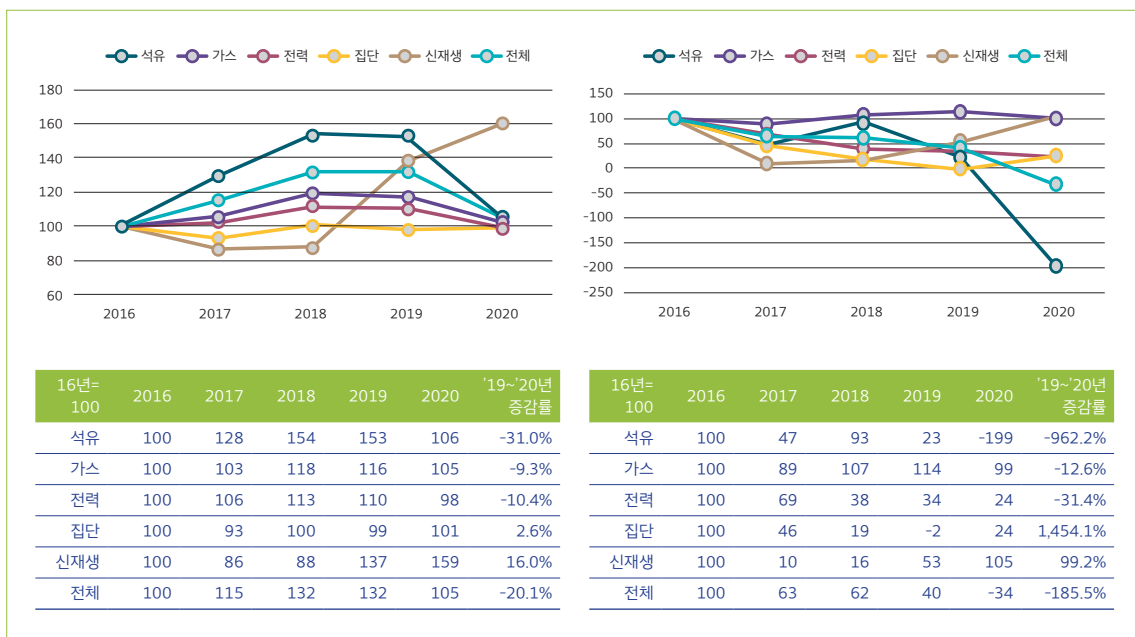


◎ 에너지산업별 코로나19 영향 요약

- '20년 상반기 조사 대상 에너지기업들 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1% 및 185.5% 하락

- 부문별로는 석유, 가스 및 전력 기업들이 하락한 반면 집단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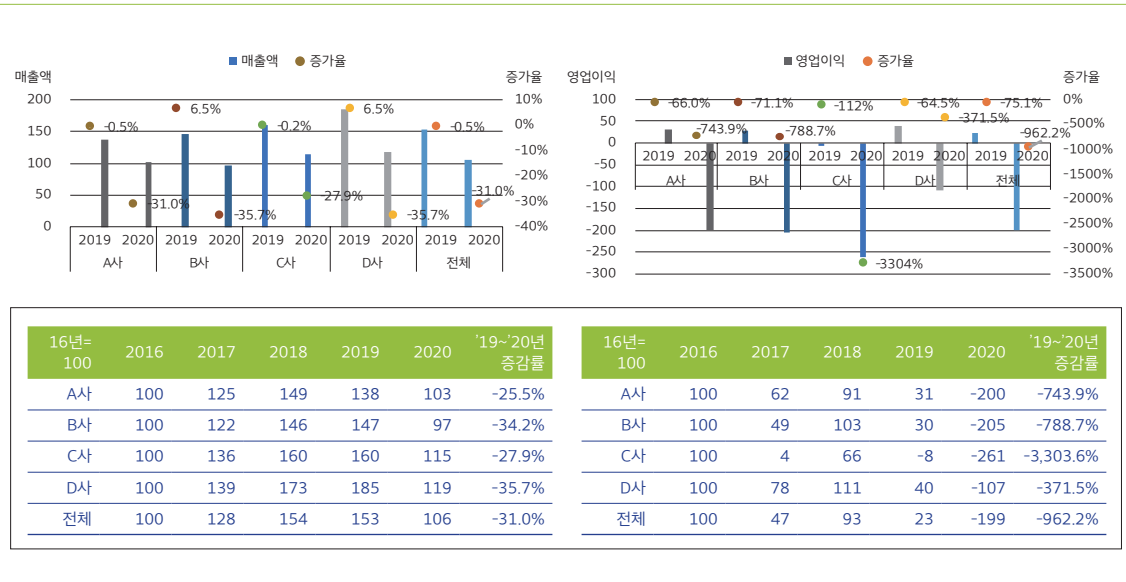
| 그림 3 | 연도별 상반기 에너지기업 매출액(좌) 및 영업이익(우) 추이('16~'20, '16년=10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석유산업

| 그림 4 | 연도별 상반기 정유사 매출액(좌) 및 영업이익(우) 추이('16~'20, '16년=10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20년 상반기 정유사들은 석유수요 감소와 경영 여건의 악화로 인해 영업 실적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나빠짐.

- 4대 정유사의 올 상반기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0% 및 962.2% 하락
 - 정유사별로 매출액은 최소 25.5%에서 최대 35.7% 하락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최소 371.5%에서 최대 3,303.6% 하락하여 모두 손실 기록
- 석유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2.5%감소했으나, 여기에 더해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출액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
- 정제마진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정유산업이 큰 폭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정유사의 손익분기 정제마진 수준은 배럴당 4~5달러 수준이지만, 2020년 상반기 정제마진은 -1.5~3달러 수준을 기록
 - * 월 평균 정제마진: 1월(0.4달러), 2월(3.0달러), 3월(0.4달러), 4월(-0.8달러), 5월(-1.5달러), 6월(-0.5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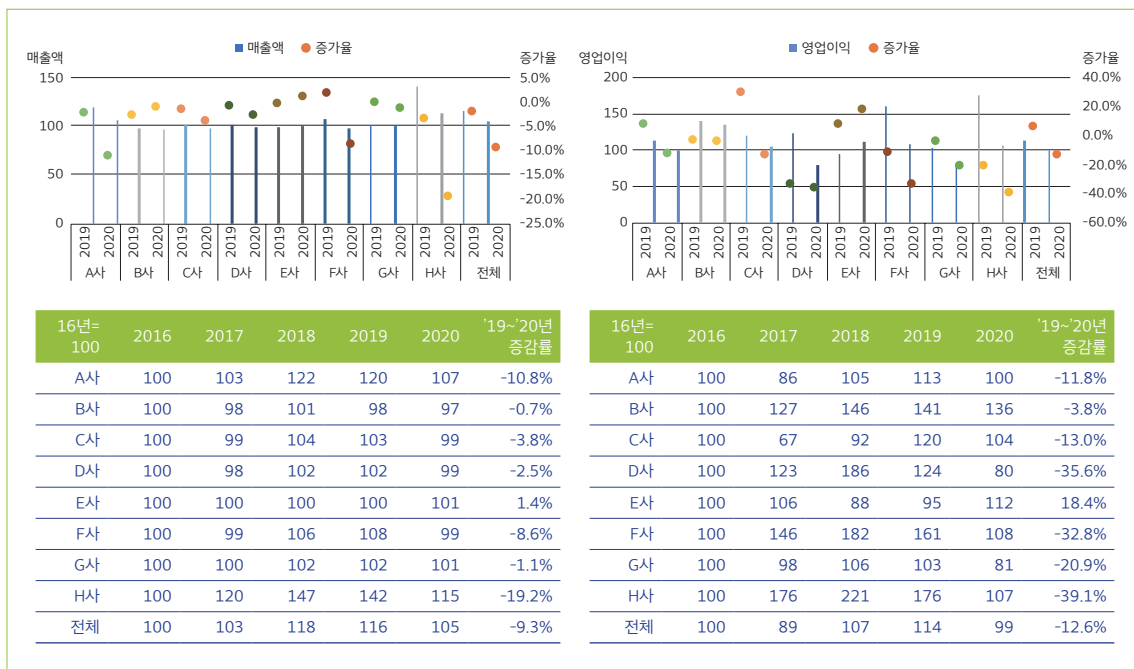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이 시작된 2분기 정제마진은 마이너스를 기록해 정유산업의 대규모 영업손실 주요 원인으로 지목
-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심각했던 1분기의 원유 재고자산평가손실분은 2분기에 들어 국제 유가가 다소 상승함에 따라 상당 부분 만회

■ **(전망)** 정유산업의 매출액과 수익성은 국제 유가의 상승 폭과 정제마진 수준에 따라 회복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
- * 2021년 상반기 국제 유가는 2020년 평균(추정치: 41.33달러)보다 높은 44.17달러로 소폭 상승 전망
- 3분기 이후 석유제품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과 아시아지역 정유사 가동률 상승은 정제마진 회복에 부정적 영향
- * 4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정제마진이 8월 이후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 이하를 기록(9월 4주차: 0.5달러)
- * 중국 정유사의 가동률 상승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추가적인 이동제한 조치 실행은 정제마진 회복에 부정적 영향

가스산업

| 그림 5 | 연도별 상반기 가스사 매출액(좌) 및 영업이익(우) 추이('16~'20, '16년=10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20년 상반기 가스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은 전반적으로 나빠졌으며, 사업자별로 그 정도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

■ 상위 8개 가스사업자¹⁾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및 12.6% 감소

■ (가스공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상반기 대비 각각 10.8%, 11.8% 감소

- 상반기 가스 소비의 43.5%를 차지하는 발전용 수요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제 유가의 급락에 따른 LNG 도입가격 하락으로 발전용 판매요금이 하락하여 수익성은 다소 악화

* 상반기 발전용 평균 판매단가는 전년동기대비 16.9% 감소

■ (도시가스) 조사 대상 7개 도시가스 사업자의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9%와 17.7% 감소

-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상반기 대비 인상됨에 따라 총매출액 하락폭이 도시가스 수요 감소폭 보다 작게 감소

* 도시가스 수요 : 전년 상반기 대비 6.8% 감소

- 도시가스 산업은 공급배관 설비투자 감가상각 등의 고정비 비중이 높아 매출하락시 영업이익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

■ 석유화학기업 등 대형 수요처의 LNG 직도입 확산으로 인해 산업용 판매비중이 높은 도시가스 사업자(E사~H사)의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9.2%, 39.1% 감소하며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화

* 상반기 민간부문의 원료용 LNG 직도입 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157.3% 증가

■ (전망)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과 저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스 산업의 수익성은 더욱 나빠질 전망

- 코로나로 인한 경기 저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용 LNG 직도입 증가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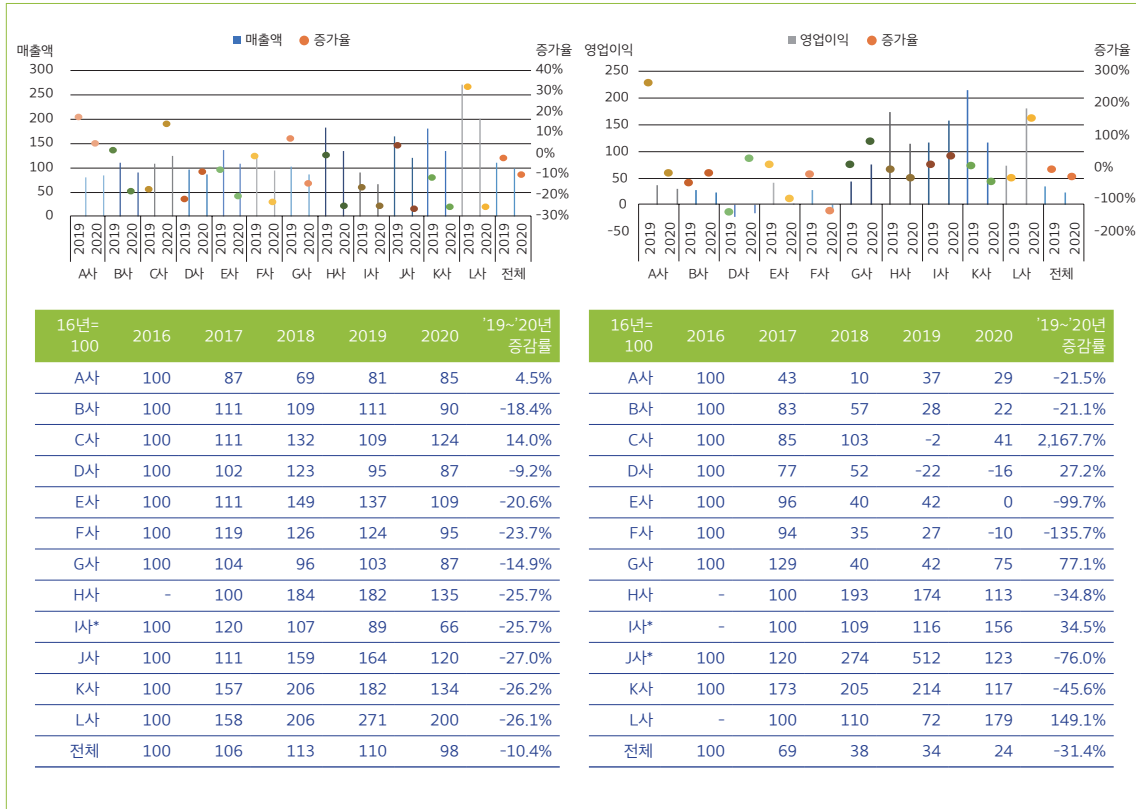
- 특히 하반기에도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가스 사업자의 수익구조는 더욱 나빠질 전망

- 다만 금번 도시가스 요금인하로 도시가스의 타연료 대비 상대가격 구조가 다소 개선됨에 따라 연료대체에 따른 가스 수요 감소폭을 다소 상쇄할 전망

1) 매출액 기준 상위 기업들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정보의 열람이 가능하고, 사업이 다각화된 기업의 경우 가스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보를 별도로 취득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전력산업

| 그림 6 | 연도별 상반기 발전사 매출액(좌) 및 영업이익(우) 추이('16~'20, '16년=10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주: A사 ~ F사는 발전공기업, G사 ~ L사는 민간발전사임.

* 해당 발전사의 지수 산정의 기준년도는 '17년임.

◎ 발전사들은 전력수요 감소와 더불어 전력도매가격(SMP) 하락으로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나빠짐.

■ 12개 발전사의 올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 10.4% 및 31.4% 감소

- 코로나19로 올해 전력수요가 전체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발전사의 매출액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작년 상반기 대비 전력수요 2.9% 감소(산업 △5.2%, 상업 △2.0%, 가정 5.3%↑)

- 연료비 하락에 따라 전력 생산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평균 SMP가 전년 상반기 대비 20.7% 가량 하락하여 영업실적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발전공기업 5사의 경우 매출액(△13.1%) 대비 영업이익(△62.9%)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발전공기업 5사 중 C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은 적게는 1,788억 원에서 많게는 6,035억 원까지 매출이 감소
- 연료비(유연탄) 구매단가의 하락*이 판매비(SMP)의 하락보다 낮아서 영업이익 감소폭이 매출액 감소보다 더 크게 나타남.

* 전년 동기 대비 유연탄 구매단가 변화 : (A사) △7.5%, (B사) △10.5%, (C사) △8.5%, (D사) △0.2%, (E사) △1.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 화력발전의 이용률 감소* 또한 발전공기업 실적 악화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석탄발전 이용률 : ('20 상) 57.69%, ('19 상) 65.11%

■ 민간발전사 또한 작년 대비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영업이익의 감소폭은 발전공기업에 비해 다소 작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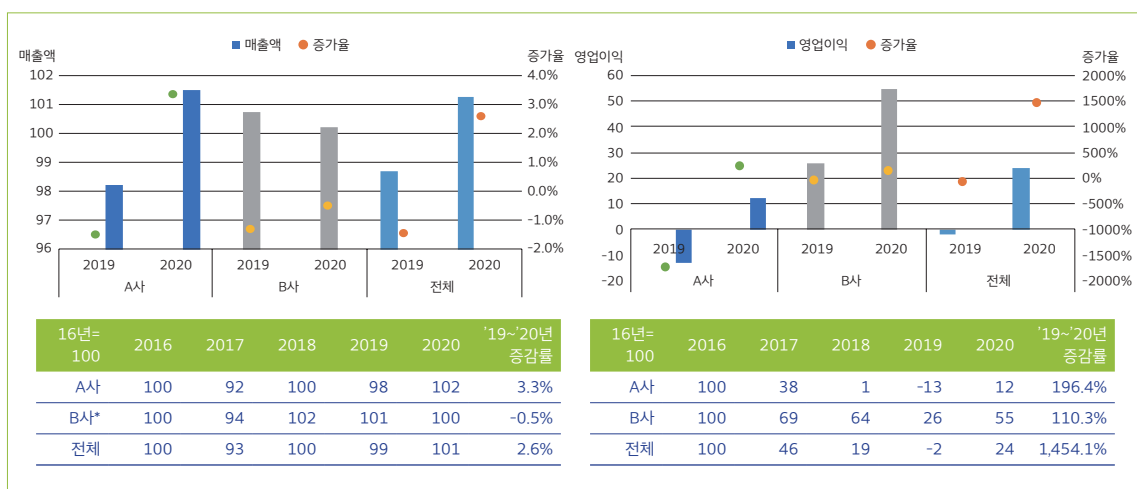
- 6개 민간발전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3.2%와 27.3% 감소
- 가스발전 비중이 높은 민간발전사의 경우 연료용 천연가스의 구매단가가 SMP 하락과 유사한 정도로 하락하여 영업실적의 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음.

■ (전망) 발전사업자의 영업실적 악화는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및 서늘했던 여름철 날씨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SMP 또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어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집단에너지

[그림 7] 연도별 상반기 집단에너지사 매출액(좌) 및 영업이익(우) 추이('16~'20, '16년=10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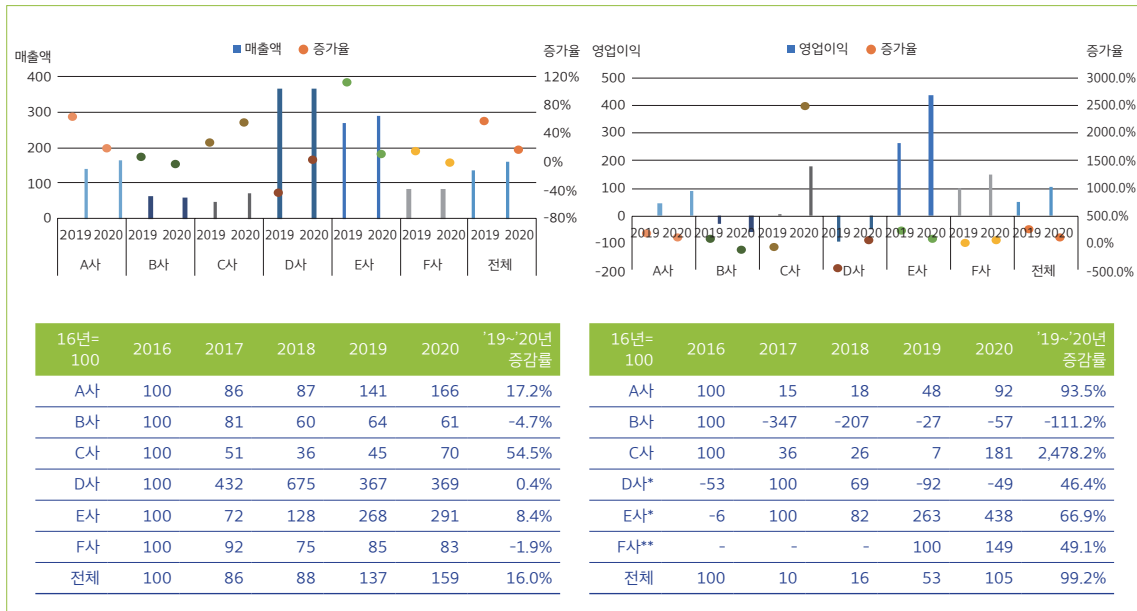
◎ '20년 상반기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열 수요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용 천연가스 구매단가의 하락과 열요금의 인상으로 경영 환경 개선

- 조사대상 2개 집단에너지사업자²⁾의 '20년 상반기 열부문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및 1,454.1% 증가
- '20년 상반기에 주요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 반면 열에너지 요금은 전년 동기에 비해 인상되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 열에너지 소비가 다소 감소($\Delta 1.1\%$)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요금의 인상폭(3.8%)이 더 높아 매출액은 다소 증가
 - *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어 있는 열에너지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9년 8월에 용도별로 각각 3.8% 인상
 - 이에 더해 연료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출원가가 감소함에 따라 영업이익은 매출액 증가폭 이상으로 개선
 - * A사 및 B사의 연료(LNG) 구매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각 19.5%, 26.1% 감소
- (전망) '20년 하반기와 그 이후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상반기보다 다소 나빠질 가능성 상존
 - 향후 추가적인 열에너지 요금의 조정이 없다면 금년 7월 열에너지 요금 인하($\Delta 2.8\%$)의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부문을 중심으로 열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경영 환경이 나빠지는 정도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2) 많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대기업의 계열사들인 특성 상 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접근성이 없었으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정보가 가용한 2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만 조사 대상에 포함함.

신재생에너지산업

그림 8 | 연도별 상반기 신재생사 매출액(좌) 및 영업이익(우) 추이('16~'20, '16년=10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주 : A사 ~ C사는 태양광 설비제조사, D사 ~ F사는 풍력 설비제조사업

* D사와 E사의 '16년 영업이익은 음(△)인 점을 감안하여 지수 산정 기준년도를 '17년으로 설정

** F사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영업이익 자료가 '19년부터 가용

◎ 신재생에너지기업의 '20년 상반기 경영 실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

■ 조사 대상 6개 신재생에너지기업의 '20년 상반기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및 99.2% 상승

- 부문별로는 태양광기업 3사의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6% 및 96.8% 상승, 풍력기업 3사는 각각 5.6% 및 113.9% 상승
- 기업별 매출액 증감률은 △4.7%에서 54.5%의 범위에 있으며, 여타 에너지산업에 비해 비교적 큰 편차를 보임.

■ 신재생에너지 제조사는 '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나 저유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도 '20년 상반기의 실적이 기존 추세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음.

* '20(상)년 신재생 제조사 수출 비중 : (태양광 2개사) 37.2%, (풍력 2개사) 93.3%

- 국내시장의 경우 주로 RPS 등 의무화 정책에 의해 보급량이 결정되며, 연료의 투입이 없는 태양광과 풍력은 저유가의 직접적인 영향도 거의 없음.

* 국내 태양광 및 풍력 설비용량 : ('19년 상반기) 태양광 1,345MW, 풍력 133MW → ('20년 상반기) 태양광 2,130MW, 풍력 162MW

- 태양광 및 풍력의 해외 시장도 '20년 상반기 코로나 19로 인한 충격은 제한적이며, 조사대상 기업의 수출에 큰 추세의 변화가 없음.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상반기 건설 중인 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단기적인 영향을 받았음.
-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의 해외 시장은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으며, '20년 상반기에도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어 '20년 전체 태양광, 풍력 보급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³⁾

- 국내 일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 및 저유가에 따른 SMP의 하락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와 무관하게 현물시장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격*이 급락(△39.5%)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SMP의 하락(△20.7%)은 현물시장 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를 가중함.

* 현물시장 REC 가격('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72.2원/kWh → 43.7원/kWh

- 다만, 고정가격 장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의 경우 SMP 하락에 따른 수익성 영향은 크지 않음.

* 가중치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며, 고가중치 발전사업자는 수익 증대도 가능함.

- **(전망)** 신재생에너지 제조사의 양호한 영업실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SMP의 변동과 해외 시장의 여건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시장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별 매출 실적은 각 기업의 수주 역량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

* 태양광 신규 설치 전망(BNEF, GW) : ('19년) 118.4 → ('20년) 127.5 → ('21년) 158.4

* 풍력 신규 설치 전망(BNEF, GW) : ('19년) 60.9 → ('20년) 71.8 → ('21년) 78.3

- 유가하락에 따른 그리드패리티 역전, 코로나로 인한 발전소 건설 지연 등으로 인해 세계 시장이 축소될 경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은 존재

- 국내 시장은 의무비율의 하향 조정과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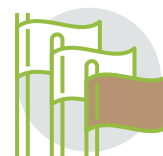
- 다만, SMP와 REC 가격이 낮게 유지된다면 일부 국내 발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와 공급 위축 우려가 있음.

*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현물 시장보다는 고정가격 장기계약 시장과 수의계약 시장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

* 기존에 현물에 시장에 진입한 일부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소수력 사업자의 경우 사업성 악화 우려 존재

3) BNEF, 3Q 2020 Global PV Market Outlook, & 3Q 2020 Global Wind Market Outlook.

V 종합 및 시사점



◎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요측면의 충격으로, 에너지 수요의 감소와 가격의 하락을 동시에 야기

- 2020년 석유수요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은 1분기 5.1%, 2분기 16.5%, 3분기 7.1%를 기록하였고, 수요 감소폭이 3분기부터 축소
- 국제 유가(두바이유)는 1분기 \$50.42/b에서 2분기 \$30.73/b로 급락하였다가 3분기 \$42.90/b와 10월 \$40.67/b로 반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재택시간의 증가로 가정 부문의 소비는 다소 증가

- '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 생산이 둔화되고 외부활동이 위축되어 총에너지와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
 - 총에너지 기준 에너지원별 소비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한 반면, 석탄, 석유, 가스는 모두 감소
 - 최종소비 부문별로는 가정 부문 소비가 다소 증가한 반면, 다른 부분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송 부문에서 급감

◎ 저유가와 에너지 수요의 감소로 인해 에너지원별 가격 또한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각각의 하락 시기와 정도는 상이

- 저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수요의 감소로 인해 '20년 상반기 국내 석유제품 가격 또한 신속하게 하락하였으며, '20년 상반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

- '20년 상반기 가스 요금과 열에너지 요금(가스 요금에 연동됨)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19년 하반기에 각각의 요금이 인상된 후 유가 연동의 시차로 인해 금년 하반기인 7월에야 인하됨.
 - * 일반적인 LNG 도입계약의 도입가격공식은 3~6개월 전 유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유가 연동 시차가 있음.
- 전력도매가격(SMP)은 전력수요 감소와 저유가로 인한 발전용 천연가스 열량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급락

◎ 에너지원별 수요와 가격 수준에 따라 각 에너지산업간 경영 실적은 상이하게 나타남.

| 표 4 | 2020년 하반기 에너지원별 에너지산업 영향(전년 상반기 대비)

에너지원	수요(매출량)	가격(요금)	매출액	영업이익	비고
석유산업	↓↓↓↓	↓↓↓	↓↓↓	↓↓↓↓	가격 및 수요 감소, 마이너스 정제마진
가스산업	↓↓↓	↑↑	↓	↓	도시가스 요금 상승,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감소
전력산업	↓↓↓	↓	↓	↓↓↓	SMP 하락
집단에너지산업	↓	↑↑	↑↑	↑↑↑	열요금 상승
신재생 설비 제조사	↑↑	-	↑↑↑	↑↑↑	신재생 보급 확대(제조사 ↑), SMP 및 REC 가격 하락(발전사 ↓)

-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수요의 감소와 가격의 하락에 더해 마이너스의 정제마진으로 인해 경영 실적이 가장 많이 나빠짐.
- 도시가스사는 전년 상반기 대비 인상된 요금의 효과로 매출액(△4.9%)이 수요(△6.8%)보다 작은 폭으로 감소
 - 공급배관 설비투자 감가상각 등의 고정비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매출액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
 - 산업용 도시가스의 수요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산업용 비중이 높은 도시가스사의 경영 실적은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나빠짐.
- 발전사는 수요 감소와 SMP의 하락으로 인해 매출액이 많이 하락했으며, 발전연료 구매단가가 전력판매단가(SMP)보다 작은 폭으로 하락하여 영업이익은 매출액보다 큰 폭으로 하락
 - 영업이익은 가스발전 위주의 민간발전사보다 석탄화력 위주의 발전자회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발전용 유연탄의 구매단가가 발전용 천연가스 구매단가보다 작은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임.
- 집단에너지사는 열 수요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구매단가의 하락과 열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개선됨.

- 연료의 투입이 없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사는 국내외 보급 확대의 영향으로 경영 실적이 대폭 개선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는 REC 가격의 급락과 더불어 SMP의 하락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향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에너지원별 수요와 가격 수준에 따라 각 에너지산업간 경영 실적은 달라질 전망

- 제한적이지만, 국제 유가 상승과 수요 회복 추세에 있는 정유사는 상반기에 비해 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다만, 국제 유가의 상승폭과 정제마진 수준에 따라 경영 실적의 개선 속도가 결정될 전망
- '20년 하반기 도시가스사와 집단에너지사는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의 하락으로 인해 상반기에 비해 경영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 상존
- SMP의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어 발전사업자의 영업실적의 악화는 '20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신재생에너지 제조사의 양호한 영업실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SMP의 변동과 해외 시장의 여건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분석의 한계

- 에너지산업별 기업들의 경영 실적에 대한 분석은 일종의 사례연구로, 그 결과를 에너지산업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모수를 대표할 수 있는 샘플링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분석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또한 경영 실적을 결정하는 요소 중 매출량(에너지 수요), 연료 구매단가, 제품 판매단가 정도만 고려하여 설명력에 한계 존재
- 예를 들어 정유사의 원유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장부상의 손실로, 영업이익 수준 평가의 부정확성 요인임.
- 향후에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과 요인분석의 적용, 분기별 세분화 등을 통해 분석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KEEI

ISSUE BRIEF

에너지 현안 브리프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